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8월 넷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19.0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4.3% WoW), 소맥(-8.2% WoW), 대두(-4.5% WoW), 원당(+0.5%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 주간 수출 판매량이 총 4,840만 부셀로 집계되며 기대치 하회. 국제곡물위원회(IGC)가 18/19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옥수수 가격 하락 요인. 소맥은 러시아 정부가 12월 이후 소맥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전까지 수 개월간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이라 전망이 소맥 가격 하락 압박.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는 여전하나, 3년래 최고치로 상승한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된 점도 급락 요인으로 작용. 대두는 미-중간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지속. 미국 주요 대두 재배지역의 양호한 기상과 강수량이 대두 생산량을 역대 최고치에 근접시키며 가격 전주 대비 4.5%하락. 원당은 18/19 브라질 중남부 지역의 원당 생산량 전망치가 종전 2,820만 톤에서 2,793만 톤으로 축소. 크리시 업체들이 에탄올 생산 비중을 높인 점도 원당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공급과잉 관측이 여전해 상승모멘텀은 부재하며 전주 대비 강보합

중국 최근 라이신 공장 재고 감소가 출현되며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 꾸준히 상승 중. 최근 몇 개월 동안 라이신 수출 크게 높은 수준 유지. Dongxiao 9월 신공장 가동 예정. Qifeng 10월 라이신 시운전 예정. Chengfu 생산 재개 시작. Baicheng도 4분기 라이신 생산 가동 예정. 메타오닌은 시장 공급 과잉 상황하에 최근 가격 하락.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한 상황. Ningxia Ziguang 7월 중순부터 15일간의 유지 보수 일정으로 출하량 줄었으나 곧 생산 재개 예정. 단기간 가격 약세 유지.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 업체의 생산량 감소했으나 재고 압력은 여전한 상황. 약세 기조 유지로 전주 대비 0.6% 하락. 회전올도 하락 중. Dacheng 판매 가격도 하락. Yipin 도 생산 보류 상태. Wanli Runda는 9월 생산 재개.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와 중국 국내 제조 업체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안정 전망. Dragon 생산 정상화. Yipin 등 일부 제조업체 생산 중단 및 9월 생산 재개

국내 이벤트는 1. 보해양조, '보해소주' 가격 16.4% 인상. 일부 지역에서의 소량 판매로 단가 인상 불가피 2. 하림, 6월 기준 삼계탕 대미 수출 155만 달러로 18년 연말 300만 달러 수출 달성 전망 3. 맥주, 중국향 국산 맥주 수출액 5,02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중국 내 수입 맥주 중 점유율은 9.1% 4. 담배, 7월 담배 판매량 3억 25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반면 1-7월 누적 판매량은 -1.3%YoY로 감소세 유지 5. 보해양조, 세계 최대 유통업체 미국 월마트와 협력해 중국 상해 지역에 '일세주', '복받은 부러더' 출시. 오프라인 시장도 진출 본격화 6. 전자담배, 7월 권련형 전자담배 전년 동월 대비 0.7%증가해 3,140만갑 판매

#### 2. 금주 전망

**음식료: 2Q18 Review 대부분 실적 기대치 하회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실적호조 대상, 빙그레, 기대치 부합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대상 연결기준 매출액 전년 수준 유지, 별도기준 1.8% 성장.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47.9%, 별도기준 38.7% 성장. 별도 식품은 소세, 김치, 편의식품류(HMR)가 외형성장을 주도. 수익성은 광고/판매비 등 비용 통제 효과 반영. 해외는 PT미원 전분당 성장으로 영업이익 전년도 4억원 적자에서 18년 +23억원 달성. 별도 실적의 비용 절감 노력과 PT미원의 전분당 성장이 실적 성장 주도. 빙그레 매출액 3.4% 증가 (전년동일기준, 17년 숫자 변경). 영업이익 81.1% 증가로 호실적 달성. 7-8월 빙과매출 호조 지속 중. 2분기 절감된 마케팅비 지출이 3-4분기 예상되지만 매출 흐름과 감안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 있다고 판단. C.J제일제당 전체 숫자는 컨센에는 부합 농산물 원재료 부담으로 가공식품 수익성 하락이 아쉬운 실적. 소세 식품은 원당 하락 효과와 설량 성수기 도래 영향으로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하며 고정장. 생물자원은 시세 회복효과로 예상치 상회하며 177억원 기록. 가공식품 부진 상쇄. 생물자원은 하반기 전망 긍정적. 해외바이오 실적은 3분기 저점 형성 후 4분기 개선 기대. 3분기 가공식품 부문은 추석 비용 선반영까지 더해지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고마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 M&A 성공 여부가 주가 향방 결정할 전망. 매일유업 매출액은 회계변경 영향으로 2% 감소했지만 실질 소폭 성장 흐름 유지. 영업이익은 별도기준 189억원 기록 하며 컨센을 소폭 하회. 중국 수출 분류, 원유유, 상하목장 등 매출성장 흐름 지속.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 지속 예상 오리는 중국 매출액이 기대치를 약 200억원 하회하는 등 기존 제품 매출 회복 지연이 아쉬운 실적. 영업이익과 컨센서스의 차이는 중국의 일회성 비용 120억원(중국 신제품 입점, 판촉 비용) 반영 때문. 하반기 중국은 국경절, 추석 도로로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예상되지만 다수의 신제품 출시로 비용 집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중국은 기존 제품의 더딘 매출 성장. 중국 외 지역은 완만한 매출/이익 성장 예상으로 하반기 회복 속도에 기대감 낮아질 전망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오리는 (271560)**

2Q18 실적은 중국 매출액이 기대치를 약 200억원 하회하는 등 기존 제품 매출 회복 지연이 아쉬운 실적. 영업이익과 컨센서스의 차이는 중국의 일회성 비용 120억원(중국 신제품 입점, 판촉 비용) 반영 때문. 하반기 중국은 국경절, 추석 도로로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예상되지만 다수의 신제품 출시로 비용 집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중국은 기존 제품의 더딘 매출 성장. 중국 외 지역은 완만한 매출/이익 성장 예상으로 하반기 회복 속도에 기대감 낮아질 전망. 중국은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8.2%, 현지통화 기준 +43.2%. 카테고리별 성장 파이 +36.3%, 껌 +26.6%, 비스킷 +47.1%, 스낵 +62.2%. 카테고리별 비중 파이 33.3%, 껌 6.2%, 캔디 1.6%, 비스킷 15.8%, 스낵 43.1%. 베트남은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1%, 현지통화 기준 +9.5%. 카테고리별 성장 파이 +8.4%, 비스킷 +38.6%, 스낵 -13.9%. 초코파이 14% 성장에 힘입어 파이류 성장 지속, 비스킷 상여반 고정장 영향으로 40% 성장. 러시아는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21.0%, 현지통화 기준 -11.7%. 달러 구조개편 완료로 달러 조정에 따른 매출 감소는 완화 예상. 국내는 매출액 성장 원화기준 +4.7%, 영업이익 전년 수준 유지. 교복집, 썬칩, 생크림파이, 마이구미(복숭아) 등 신제품 판매 호조로 매출 성장 견인

##### 동원산업 (006040)

2Q18 여가 상승 및 여취량 회복 영향으로 매출/영업이익 고정장. 반면 3Q18 수산부문은 7월부터 FAD조업금지기간과 맞물리며 여취량 부진 우려 있음. 수산부문은 캐시카우의 역할 지속, 물류는 업황 안정성 유지, 유통은 향후 주력 방향으로 사업 추진 계획. 3분기 수산부문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 18.6월까지 여가 양호했으나 7월 여가 1,200불, 여취량 1.3톤으로 조업상황 다소 악화. 7월 FAD 조업금지 기간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 8월 여가는 1,300~1,400불대로 회복 중. 여취량은 1.2~1.3만 톤 예상. 15년의 상황처럼 여가 1,150불까지 추가 하락하는 경우 저장 보관 후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 고려 중. 유통부문의 스타키스트는 참치나 연어 외에 신규 파우치 제품(새우, 치킨)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18년 매출액 1조 2천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 목표로 사업계획 구상. 어가로 인한 수산 부문의 부진을 상쇄해줄 전망. 물류부문에서는 18년 작년 고속 버스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 100억 빠지는 걸 감안해서 작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게 목표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2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2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2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